

2027  
고2 문학  
미래엔

### 2027 고2 문학 미래엔 | 1(2)(1) 꽃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예상 출제 유형

이번 단원에서는 작가의 삶이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꽃」의 주제나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낙화」에 드러나는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실린 두 작품의 표현법을 비교 및 대조하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갱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 바다 북판 웅숭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나)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 ㉠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달이가  
우련 붉어라.

문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 1. (가)와 (나)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나)는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가혹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적 태도를, (나)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절망감에서 희망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 ⑤ (가)는 과거의 평화로운 삶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나)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가)의 작가인 이육사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로 일제 강점기 저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 (나)의 작가인 조지훈은 청록파로 불리는 시인이다. 초기에는 「승무」 등 전통적인 소재를 통해 고전의미를 추구하여 전통적 서정성을 발전시킨 작품을 많이 썼다. 조선어 학회 사건을 겪고 민족적 현실에 깊이 좌절하면서 방랑하는 정서가 담기게 되었다.

- ① (가)의 '비 한 방울 나리짚는 그 땅'은 화자가 현실의 고난을 피해 도피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임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꽃 맹아리'와 '제비 떼'는 (나)의 '바람'과 마찬가지로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과 시련을 의미하는군.
- ③ (나)에서 '바람을 탓하라'라고 한 것은 일제 강점기의 폭압적 현실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수용하려는 체념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④ (나)의 '문혀서 사는 이'에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민족적 현실에 좌절하여 세상과 단절된 채 숨어 지내야 했던 작가의 삶이 투영되어 있겠군.
- ⑤ (가)의 '너'와 (나)의 '아는 이'는 모두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 맞서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투쟁하기를 촉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군.

3.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각 연을 모두 4행으로 배열하여 형태적 안정감을 부여하고 음악성을 느끼게 한다.
- ② 차분하고 담담한 독백적 어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간절한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강인한 생명력과 광복에 대한 희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의미의 시어 및 시구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어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 (가)의 화자와 작품에 제시된 청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청자에게 현실의 고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 ② 화자는 청자의 오랜 부재를 안타까워하며 고향으로 회귀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청자에게 세속적 가치를 버리고 삶을 성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호명하며 미래의 환희와 기쁨을 함께 나눌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는 청자에게 현실의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5. (가)의 시상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봄을 기다리는 '꽃 맹아리'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1연과 2연에서 누적된 화자의 내적 고뇌가 심화되며 시상이 마무리되고 있다.
- ④ 1연의 '꽃'은 2연의 '꽃 맹아리'를 거쳐 3연의 '꽃성'으로 의미와 규모가 점층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 ⑤ 각 연의 마지막 행을 영탄형 어미로 종결하여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6.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하여 자연의 순환에 대한 화자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 이후에 시각적 이미지를 연속으로 배치하여 밝아오는 아침의 풍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촛불'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통해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 ④ 흰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시선에 닿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낙화를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으로 묘사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시기가 끝나지 않는 영원함을 소망하고 있다.

7. (나)의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꽃이 지는 그림자를 미담이에 더욱 선명하게 비치게 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적 행위이다.
- ② 어둠 속에서 자신의 고독한 내면을 타인에게 감추고자 하는 화자의 방어적 심리이다.
- ③ 세속적 욕망과 단절하고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화자의 다짐을 의미한다.
- ④ 밤이 깊어짐에 따라 생각을 차분히 정리하고 지난날을 반성하려는 화자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준다.
- ⑤ 화자의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반영한다.

8. (나)의 화자의 정서 및 심리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떨어지는 꽃을 보며 느끼던 무료함이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점차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다.
- ③ 밤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낙화로 인한 삶의 무상감과 애상적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태도에서 연민과 애정의 감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 ⑤ 현실에 대한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다지고 있다.

【9~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갈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리려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 바다 복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나)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랴.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족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 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담이가  
 우련 붉어라.

문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노니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9.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생각이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색채를 드러내는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대립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점층적 구조를 통해 대상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1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자연 현상에 대한 화자의 호기심과 경이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질문의 형식을 통해 청자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자연의 순환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생명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통해 화자가 직면한 비극적 상황의 원인을 강조하고 있다.

11. (가)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동방'은 하늘이 끝나고 비가 내리지 않는 절망적이고 가혹한 상황을 보여 주는 공간이다.
- ② '북쪽 튼드라'는 차갑고 척박하지만, 동시에 생명이 태동할 준비를 하는 공간이다.
- ③ '한 바다 복판'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이자 고난의 상황이 해결된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이다.
- ④ 1연과 2연에는 부정적 공간이, 3연에는 긍정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먼저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화자

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1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는 일제 강점기 저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 단원이었던 이육사는 여러 차례 투옥될 정도로 일제에 강하게 저항했으며 옥고를 치를 당시의 수인 번호였던 '264'를 따서 호를 '이육사'라고 지었다. 비극적인 현실 인식과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작품에 담아내어 지사적 면모를 드러내었다.

- ① '동방'은 화자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은신하고자 하는 평화로운 도피처를 의미하는군.
- ②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는 독립운동 과정에서 겪은 자신의 희생에 대한 회한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군.
- ③ '눈 속 깊이' 움작거리는 '꽃 맹아리'는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광복의 기운을 상징하는군.
- ④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하게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고 일제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맹세이군.
- 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는 일제의 폭압 속에서 현실을 도피하며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나약한 지식인들을 나타내는군.

13. (가)의 시어 및 시구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 목숨을 꾸며'에는 조국 광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화자의 지사적이고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다.
- ② '기다리나니'에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화자의 막연한 불안감과 언제 올지 모르는 봄에 대한 초조함이 짙게 배어 있다.
- ③ '저버리지 못할 약속'에는 외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만 했던 화자의 비애감이 반영되어 있다.
- ④ '나비처럼 취하는'에는 현실을 회피하는 당대 민중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시각이 나타난다.
- ⑤ '오늘 내 여기서'에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불안감과 걱정이 담겨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가)는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짙는’과 같은 극한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꽃’을 피워 내고, ‘제비 떼’가 날아오는 밝은 미래를 기다리는 화자의 강인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나)는 ‘꽃이 지기로소니 / 바람을 탓하랴’라는 설의적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떨어지는 꽃을 보며 이를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않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며 관조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① (가)는 ‘발갈게’, ‘까맣게’ 등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력과 희망을 드러내며, (나)는 ‘하이얀’, ‘우련 붉어라’ 등의 색채를 통해 낙화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화자의 애상감을 드러낸다. 두 작품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부각하기 위해 색채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② (가)는 ‘용솟음치는’, ‘타오르는’과 같은 상승의 이미지를 통해 역동적이고 강인한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꽃이 지는데’, ‘스러지고’와 같은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소멸과 비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찬 미래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상을 전개하나, (나)는 밤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낙화를 바라보며 느끼는 삶의 무상함과 비애감이 짙어지고 있다.

⑤ (가)는 다가올 밝은 미래인 ‘꽃성’에서 기쁨을 누릴 날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노래할 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 2. 정답 ④

(나)의 ‘문혀서 사는 이’는 현실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화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를 참고할 때 조선어 학회 사건 등을 겪으며 민족적 현실에 좌절하고 숨어 지내야 했던 작가의 삶이 투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① (가)의 ‘비 한 방울 나리짙는 그 땅’은 생명력이 결핍된 극한의 공간으로, 조국을 빼앗긴 일제 강점

기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한다. 화자가 도피하고자 하는 이상적 공간이 아니다.

② (가)의 ‘꽃 맹아리’와 ‘제비 떼’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품고 있는 광복의 기운과 희망찬 미래를 상징하는 긍정적 시어이다.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③ (나)의 ‘바람을 탓하랴’는 꽃이 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태도를 설의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일제 강점기의 현실을 숙명으로 수용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너’는 광복을 맞이한 조국에서 기쁨을 누릴 미래의 우리 민족을 의미하며, (나)의 ‘아는 이’는 은둔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를 의미한다. 두 시어 모두 적극적인 연대나 투쟁을 촉구하는 대상이 아니다.

### 3. 정답 ②

(가)에는 차분하고 담담한 독백적 어조보다는 영탄적 어조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화자의 기다림과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① 3개의 연이 각각 4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형태는 안정감과 음악성을 느끼게 한다.

③ ‘발갈게’, ‘까맣게’와 같은 시각적 심상을 통해 ‘꽃’과 ‘제비 떼’의 생명력과 희망찬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④ 부정적 의미의 ‘하늘도 다 끝나고’, ‘북쪽 튼드라’와 같은 표현과 긍정적 의미의 ‘제비 떼’, ‘꽃성’ 등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화자가 처한 비극적인 현실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발갈게’, ‘까맣게’와 같은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꽃’과 ‘제비 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4. 정답 ④

3연에서 화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라고 미래에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릴 우리 민족(청자)을 명시적으로 호명하며, 그 환희의 순간을 함께 맞이하겠다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① 화자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어려움을 토로하거나 책임을 청자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다.

② 화자는 청자의 부재를 안타까워하거나 청자가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다.

③ 세속적 가치를 버리거나 성찰을 권유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저항 의지는 화자만 보이고 있을 뿐,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저항하자고 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5. [정답] ③

(가)의 3연에는 ‘꽃성’에서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를 부르며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이 나타난다. 내적 고뇌가 심화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극한의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꽃은 발갛게’ 피어나는 모습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독립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북쪽 툰드라’라는 가혹한 상황 속에서도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 떼를 기다린다는 표현을 통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④ 1연의 ‘꽃’, 2연의 ‘꽃 맹아리’가 3연에서는 ‘꽃성’으로 나타나며, 그 의미와 규모가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각 연의 끝에 ‘~날이여’, ‘~약속이여!’, ‘~블러보노라’와 같은 영탄적 어조를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6. [정답] ②

‘귀족도 울음’이라는 청각적 이미지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배치하여 날이 밝아오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① ‘바람을 탓하라.’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화자는 이를 통해 꽃이 지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가 촛불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또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흰색과 검은색의 색채 대비가 아니라 ‘하이얀’과 ‘붉어라.’에서 알 수 있듯이 흰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난다.

⑤ 화자는 아름다움이 덧없다는 인식과 삶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아름다운 시기가 끝나지 않

는 영원함을 소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7. [정답] ①

방 안의 ‘촛불’을 끄면 밖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미닫이문에 ‘꽃 지는 그림자’가 더욱 또렷하게 어리게 된다. 따라서 이는 지는 꽃의 아름다움과 그 애상적인 정경을 오롯이 감상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화자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고독을 숨기기 위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③ 세속적 욕망을 끊겠다거나 구도자의 자세와는 무관하다.

④ 화자의 반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촛불을 끄는 행위 자체가 부정적인 현실 인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8. [정답] ③

(나)는 밤부터 아침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처음에는 꽃이 지는 것을 자연의 섭리로 담담히 받아들여려 하지만, 점차 ‘저어하노니’, ‘울고 싶어라’를 통해 낙화를 보며 느끼는 애상감과 슬픔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① 화자가 무료함을 느끼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② 대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낙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

④ 지는 꽃에 연민이나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⑤ 지는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비애가 나타날 뿐,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9. [정답] ⑤

(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꽃의 생명력을 통해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고 있으며, (나)는 떨어지는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삶의 비애와 무상함을 노래한 시이다. 두 작품 모두 점층적 구조를 통해 대상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① (가)는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의 생명력과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바람을 탓하라’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꽃이 지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

② (가)는 ‘발갛게’, ‘까맣게’ 등의 색채 이미지를 활

용하여 시어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나)는 '하이얀' 미닫이에 꽃 지는 그림자를 '우련 붉어라'라고 표현하며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③ (가)는 극한 상황을 드러내는 부정적 이미지와 생명력과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 이미지를 대립시켜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반면 (나)에는 이러한 대립적 이미지를 통한 현실 인식 부각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나)는 시간의 흐름(밤→새벽→아침)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가)는 이러한 전개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10. 정답 ①

'~는가'라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의 강인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② 단순한 호기심이나 경이로움의 표현이 아니라 굳은 의지와 생명력을 강조한 것이다.

③ 작품 속 청자는 '회상(回想)의 무리들'로, ㉠을 통해 청자가 내면을 성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생명의 무상함이나 자연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비극적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11. 정답 ③

화자는 '한 바다 북편'의 '용솨음치는 곳'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고요한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한의 공간이다.

② '북쪽 툰드라'는 춥고 시련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꽃 맹아리'가 '움작거'리는 공간으로 생명이 태동할 준비를 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1연에는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부정적 공간이, 2연에는 '북쪽 툰드라'라는 부정적 공간이 제시된다. 3연에서는 상승의 이미지와 함께 긍정적 이미지인 '꽃성'이 제시되고 있다.

⑤ 1~3행은 공간이나 경치를 제시하고 4행에서는 이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2. 정답 ③

<보기>에서 이육사가 비극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노래한 저항 시인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눈'이라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피어날 준비를 하는 '꽃 맹아리'는 일제 강점기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생명력과 조국 광복의 기운을 상징한다고 감상할 수 있다.

① '동방'은 화자가 살고 있는 터전이자 일제에게 주권을 빼앗겨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 처한 조국을 의미한다.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평화로운 도피처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는 척박한 땅에서도 끊임없이 꽃을 피워 내듯,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지사적이고 강렬한 의지를 영탄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희생에 대한 회한이나 안타까움과는 거리가 멀다.

④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제비 떼'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즉 조국 광복의 밝은 미래가 도래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의미한다. 무기력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는 마침내 도래할 조국 광복의 공간인 '꽃성'에서 그 기쁨과 환희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미래의 우리 민족을 상징한다. 현실 도피나 향락에 빠진 나약한 지식인을 나타낸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13. 정답 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척박한 '동방'에서 발갛게 꽃을 피워 내기 위해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을 보내겠다는 것은, 가혹한 일제 강점기 현실 속에서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화자의 지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② '기다리나니'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이 아니라, 제비 떼가 올 것이라는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에 대한 확신을 전제로 한 기다림이다.

③ '약속'은 현실과의 타협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자연의 섭리처럼 조국 광복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을 나타낸다.

- ④ '나비처럼 취하는'은 광복을 맞이한 미래의 조국에서 그 벅찬 기쁨과 환희에 취해 살아갈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⑤ '오늘 내 여기서'는 척박한 현실(여기)에서 미래세대(너)를 부르는 것으로, 광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화자의 불안감이나 걱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목단배포김시